



2021년 2월 5일  
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 
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

##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6 차)

### - 일본정부의 「긴급사태선언」의 연장에 따라서 -

2월 2일, 일본정부는 「긴급사태선언」의 연장을 발표 하였습니다. 지난 15 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, 사이타마교구로서는 기본적으로, 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의 「감염증대응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. 즉, 「행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이나 영업/이동의 자숙요청이 있을 경우, 신자들이 참가 하는 미사는 중지한다」라는 대응에 따릅니다.

계속하여, 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(현시점에서는 3월 7일), 교구전역에 있어, 「대응 제 15 차」를 지속합니다.  
또한 해제일자가 그 보다 빠를 시에는 후차의 「대응」을 발표하겠습니다.

길어지는 이 시련 속에서, 모든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, 계속하여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. 앞으로도 서로 하나되어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- 
- 「긴급사태선언」이 해제 될 때 까지 (현시점에서는 3월 7일) 공개미사 (주일, 평일미사) 를 중지 합니다.
  - 주일미사 참례 의무도 교구내의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, 계속하여 면제 합니다.
  - 교회활동도 각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 중지하여 주십시오.